壬寅年 우리설날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옥과고등학교, 우암문화재단

光州日報
SINCE 1952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제21688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월 3일 2022년 2월 3일 목요일

광주·전남 1000명 넘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광주시청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전국에서 역대 처음으로 2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설 연휴 뒤끝 코로나19 확진자 쏟아져 … 전국 2만 명 돌파
요양시설·병원·학교 중심 확산 …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우려가 현실이 됐다. 광주·전남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연일 코로나19 하루 최다 감염기록을 경신한 끝에 설 명절 당일 처음으로 1000명이 넘은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다. 전국적으로도 첫 2만명대를 기록했다. 통상 휴일에는 검사건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닷새간 광주 2731명, 전남 1573명 등 4304명이 신규 확진됐다.

일찌감치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광주·전남은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 내내 연일 역대 최다 감염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연휴기간 하루 발생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광주는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477명을 시작으로, 30일 482명, 31일 500명, 2월 1일 618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이날 오후 1시 현재 654명이 추가 확진됐다. 전남 역시 지난달 29일 320명, 30일 293명, 31일 411명, 1일 464명, 이날 오후 1시 현재 85명이 추가됐다. 특히 설날이었던 지난 1일 광주·전남은 각각 618명, 464명 등 1082명이 신규 감염돼 사상 첫 1000명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병원, 학교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설 연휴 이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가족·지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는 동구 요양병원, 광산구 요양시설의 누적 확진자가 각각 423명, 163명에 이른다. 북구 요양병원, 광산구 요양병원, 북구 어린이집의 누적 확진자도 92명, 69명, 74명에 달한다.

전남은 도내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여수·순천 등 동부권 도시 지역과 목포 등 서남부권 도시 지역의 확산세가 매섭다. 연휴 동안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곳은 여수시(311명), 목포시(279명), 순천시(226명), 무안군(125명), 나주시(102명)다. 이 밖에 광양 62명, 영암 60명, 화순 48명, 보성 44명, 담양 43명, 진도 42명, 해남 35명, 강진 31명, 장성 29명, 영광 24명, 장흥 15명, 곡성·함평 각 13명, 완도 12명, 신안 6명 등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방역당국은 인구 이동이 많았던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확산세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바뀐 진단검사체계도 변수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는 신속항원검사를 확대 도입하는 새 진단검사체계를 도입했는데, 문제는 정확도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로 넘어가지만,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PCR 검사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도 방역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가짜 음성'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특히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들과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 설 민심 어디로…"결국 민주당" vs "국힘 20% 목표"

민주당, 전통 지지세 결집 총력
국민의힘, 손편지 보내며 구애

이번 대선이 여야 후보 간 초박빙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설 명절 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민의힘도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설을 전후해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에 나서면서 호남 민심 변화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관련기사 3면〉

이를 반영하듯 여야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들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호남을 잇따라 방문해 당원과 지지 조직 결집을 다지는 등 호남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설 명절 전인 지난달 27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말바우시장, 충장로를 차례로 찾아 지역 민심을 살폈다. 이 후보의 광주 일정은 대부분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과 접촉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앞서 지난달 26일 광주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호남에 구애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의 지지세가 예전만큼 결집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텃밭 민심 다지기에 공을 들였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도 호남의 지지세를 얻어 외연확장을 통해 대선 승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설 연휴를 기점으로 호남 표심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초박빙 대선이 예상됨에 따라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에서 2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호남 구애에 적극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 지역 230만 가구에 손글씨로 작성한 '손편지'를 발송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25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 방문한 데 이어 설날인 지난 1일에는 광주 무등산에 올라 호남 득표율 2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양당은 호남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데 공감하면서, 특히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전과 같지 않은 호남 민심에 긴장하면서도 '그래도 대선 투표일에는 민주당으로 결집할 것이다'는 의지를 다졌고, 국민의힘은 '호남 표심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며 기대를 보이면서 선거 막판까지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이번 설 명절 연휴에도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를 약속드리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면서 "특히 미흡했던 모습을 일신해 잘해 달라는 시민들의 따끔한 지적을 앞으로도 더욱 경청할 것이며,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미래의 키를 쥔 2030세대와의 소통도 이어나가며 희망찬 광주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함께하겠다"면서 2030세대를 끌어안는 데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 선대위 송기석 위원장은 "이재명에 대한 불신, 회의가 꽤 있는 것 같다. 윤석열로 정권교체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게 큰 변화가 아닌가 싶다"며 "젊은 층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 가치가 훼손됐는데, 이재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20%가 꿈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진영도 양당 구도를 깨겠다며 지지 조직이 나서 물밑 선거전을 펼쳤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국축구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세계 6번째·아시아에선 처음

한국축구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위업을 이뤘다. 〈관련 기사 18면〉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1일 오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8차전에서 후반 8분 김진수(전북)의 헤딩 결승골과 후반 26분 권창훈(김천)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최종예선에서 6승 2무(승점 20), 무패행진을 이어간 우리나라는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지고 현재 3위인 UAE(승점 9·2승 3무 2패)가 이날 이란전을 포함한 3경기에서 전승하더라도 최소 A조 2위를 확보해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나설 수 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A·B조 1, 2위는 본선에 직행한다. 조 3위끼리는 플레이오프(PO)를 치른 뒤 승자가 대륙 간 PO에서 남미 예선의 5위 팀과 카타르를 향한 마지막 경쟁을 벌이게 된다.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처음 출전했던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하면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월드컵에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다. /연합뉴스

설,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민심 ▶3면
코로나에 조마조마했던 설 풍경 ▶6면
KIA 타이거즈 함평서 스프링캠프 돌입 ▶19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8(도심: 3.8, 고속도로: 3.7)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